

화순군, 장마철 가축 질병 등 위생관리 당부

나주시, 8월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의 달 운영

공기 이용 안개 분무 시스템·환풍기 설치 지원 미생물 활용 악취 제거·쾌적한 축사 환경 유지

화순군은 장마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환경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악취 저감 미생물 등을 공기 이용 안개 분무 시스템과 환풍기 설치를 지원했다.

축산 농가는 이 사업을 통해 축사 온도를 3℃ 이상 내리고 미생물을 활용해 악취를 없애고 쾌적한 축사 환경을 유지하며 건강한 가축을 길러내고 있다. 올해는 '고온기 대응 축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으로 축사 지붕에 강제 환풍이 가능한 벤츄레타 설치를 지원했다. 벤츄레타 설치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뜨

거운 공기, 악취와 유해 가스를 배출해 효과적인 환기 환경을 조성했다. 여름철 가축 질병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는 위생적인 환경, 온도, 환기, 사양관리로 줄일 수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열재 설치 ▲주기적인 환기 ▲적정 사육 밀도 유지 ▲사료 급이와 급수기 매일 청소 ▲고에너지, 고단백질 사료 급여 ▲정기적인 소독 실시 ▲모기 매개 전염병 예방 접종 등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질병



취약 시기인 여름철에 소독과 방역을 생활화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는 8월 한 달 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난 5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를 통해 하면된다.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ARS(080-339-0365)·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군,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 미생물 공급

곡성군은 지난 8월7일부터 8월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해 악취 제거와 축사 불량환경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지난 10일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퇴화된 축분, 사료 등은 침수 시 악취가 발생하고 수인성 질병 전파의 우려가 있다. 이에 곡성군은 축사환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피해농가에게 무상공급 할 대책을 마련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배양을 시작해 10일부터 공급에 들어갔다.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은 유산균이며 축사에 살포하면 악취제거와 오염균 우점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급기간은 축사 침수피해가 안정화될 때까지이며 예상 공급 물량은 9.5톤 내외이다.

현재 관내 유관단체의 도움으로 피해복구와 미생물 살포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남면→사평면, 북면→백아면으로 명칭 변경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지역 역사·정체성 재정립

화순군은 방위 구분(동서남북)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 남면과 북면의 명칭을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사평(沙坪)면과 백아(白鵝)면으로 변경한다.

군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강점기에 붙여진 일본식 행정 지역 명칭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10

월까지 사전 설문조사와 주민 찬반 의견조사 등을 진행했다.

주민 의견조사와 전문 연구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면은 사평면, 북면은 백아면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조례의 개

정을 마련했고, 지난 11월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환(가 개정안을 의결해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

화순군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한반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북군을 폐지하고 화순군에 편입하면서 17개 면의 행정 구역 골격을 갖추게 됐고, 당시 동면과 북면 등은 지역 고유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방위 구분에 따른 면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남면이 새로 갖게 될 이름인 사평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고, 북면의 새로운 이름인 백아는 화순의 대표 명산이자 북면에 있는 백아산에서 따왔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군민의 자부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전남 청년4-H 과제 발표 경진대회 우수상

담양군은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전남 청년 4-H 과제 발표 경진대회'에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 부문 우수상(담양읍 김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을 선도하는 청년4-H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과제 발표 경진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담양군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또한 4-H연합회 최준한 사무국장은 농업·농촌 및 학습단체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4-H 육성 회원 표창(전라남도지사 훈격)'을 수여받았다.

한편, 담양군은 현재 영농4-H회 1개소, 학교4-H회 4개소, 4-H본부 1개소 223명의 회원을 육성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방류량·수문 개방 시기 조정해 수해 방지 협력



장성군이 수해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군은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부

야 전문가를 비롯해 장성댐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군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게 된다. 특히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류량과 방류 시기 결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작기에 수문을 개방해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96개소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125개소가 수해를 입었으며, 피해액 규모는 215억여 원에 달한다.

이재민은 16세대에서 28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2세대 21명이 귀가한 상황이다.

기동취재본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여행 일상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드림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